

會長
法話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문한다

입정교성회 회장니와노니치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 계획은 원단(元旦)에 있다」고 하여 연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목표를 정하고, 혹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테마를 정하여 신년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도를 걷고 있는 저희들에게 목표와 테마를 정하는 기본은 곧 보살행이 되겠습니다.

보살행이라고 하면 특별한 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조님께서 늘 「일을 한다는 것은 주변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 하루 생활 속에서 남을 배려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좋으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 생활 속에서 보살행에 뜻을 두고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에게 맞는 「목표」 혹은 「테마」를 설정하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누군가가 정해주거나,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자문하여 스스로 정하는 것을 「목표」 혹은 「테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막연하게 하루 하루를 보내기 쉬운 우리들이 살아갈 목표, 테마를 발견

하여 설정하는 것에는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확대되는데, 우리들의 인생은 제각기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명확하게 포인트가 정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무슨 일이든 일을 대하는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할 때도 테마가 정해져 있으면 하나로 정리가되는 것도 빠르지 않을까요.

중국으로 건너간 도우젠(道元)선사가 어느 날 수행 중에, 햇벌이 뜨거운 한 낮에 샷샷도 쓰지 않고 묵묵히 버섯을 말리고 있는 노승을 보고 「왜 젊은 수행승이나 하인을 시키지 않으십니까?」하고 여쭙었더니, 「남에게 시키면 내 수행이 되지 않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좀 선선할 때 하시면 어떨까요?」라고 걱정하는 도우젠 선사에게 노승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간은 지금 밖에 없네」
살아갈 목표와 테마가 정해져 있으면 늘 목표를 향해 해야 할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그것에 온 힘을

을 기울일 수 있다는 것과, 동시에 상정진(常精進)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일화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잡무로 보이는 일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하여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바라는 삶과 통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그대로서 보살의 행이며 정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표와 테마를 완수하겠다」고 힘줄 필요도 없이, 마치 호흡을 하듯이 어떤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하루 테마에 어울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화내지 않고, 불평불만을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한다..... 한 순간 한 순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가며 매일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인격을 닦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목표이며 테마이며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늘 지금_여기입니다. 이렇게 눈앞의 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충실감과 삶의 의의를 느끼며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佼成』2012年1月号

본회에 대하여

입정교성회는 1938년에 개조 니와노니코, 협조 나가누마모코에 의해 창립된 법화삼부경을 소의의 정진으로 하는 제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하여,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가려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는 평화노니코회장과 함께 저희들 회원은 불교도로써의 포교전도에 힘쓰며, 종교계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손잡고 국내외의 다양한 평화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Tokyo, Headquarters

RKI of North America (Irvine)

- Vancouver, Canada
- Seattle
- Klamath Falls
- San Mateo
- Sacramento
- San Jose
- Colorado
- Denver
- Chicago
- Dayton
- New York
- Oklahoma
- Tampa Bay
- Dallas
- San Antonio
- Los Angeles
- Hawaii
- Kona
- Mauai
- San Diego
- Las Vegas
- Arizona
- Sao Paulo, Brazil
- Mogi das Cruzes
- Sao Miguel

RKI of South Asia

- London, The United Kingdom
- Geneva, Switzerland
- Venezia, Italy
- Ulaanbaatar, Mongolia
- Sukhbaatar
- Sakhalin, Russia
- Kathmandu, Nepal
- Lumbini
- Delhi, India
- West Delhi
- Kolkata
- Colombo, Sri Lanka
- Kandy-Wattegama
- Polonnaruwa
- Habarana
- Galle
- Hong Kong
- Seoul, Korea
- Pusan
- Masan
- Shanghai
- Taipei
- Taichung
- Jilung
- Tainan
- Pingtung
- Singapore
- Bangkok, Thailand
- Chittagong, Bangladesh
- Dhaka
- Mayani
- Patiya
- Dordidama
- Cox's Bazar
- Satbaria
- Laksham
- Raozan
- Chendirpuni
- Sydney, Australia

SHAN-ZAI 2012年1月号 (Vol. 76)

【発行】立正佼成会 国際伝道本部 〒166-8537 東京都杉並区和田2-6-1 普門館5F Tel; 03-5341-1124 Fax; 03-5341-1224 E-mail; shanzai.rk-international@kosei-kai.or.jp
編集責任者: 水谷庄宏 編集チーフ: 中村悦子 編集スタッフ: 松岡志帆・工藤友紀乃・斎藤華央留・江藤真弓・鈴木佐祐里・金尾江利子・牧野江身

このニュースレターは、「日本語版」「英語版」「中国語版」「ポルトガル語版」「モンゴル語版」「タイ語版」「ベンガル語版」「ヒンズー語版」「ロシア語版」がございます。また、号によってはその他の言語版が発行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ご意見・ご感想・ご不明な点がございましたら、ご連絡なく上記の連絡先までお寄せください。 ※二次使用をされる際には、国際伝道本部までご連絡ください。